

## 공간 클럽 - 06

### Space and Rooms

이재훈 / 단국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과 교수  
by Lee Jae-Hoon

건축공간에 대해 막연히 동경하며, 좋은 건축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시간을 기억해본다. 그다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보인다. 어찌보면 건축주의 요구와 구조, 기능, 설비, 건축비의 문제에 매달려 좋은 건축공간이 가져야할 모습을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건축가에게 꿈같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해본 적이 없는 나만이 만들어낸 건축공간일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건축가의 꿈이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건축인이 건축적 삶을 사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근래, 건축공간에 우선하여 형태적 유희나 재료의 표현, 프로덕션의 즐거움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경향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건축이 존재하는 고유한 영역은 결국 공간이라는 것에 모두 공감하리라고 생각된다.

젊은 시절 건축공간에 대한 향수를 달래며, 잊혀져가는 건축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일으키고자 공간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건축공간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를 던지려고 한다. 더러는 일반적인 이야기도 있겠지만, 소주제를 통해 건축공간을 전혀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 주>

### 목 차

<p>1회</p> <p>a. 공간은 하나인가요?</p> <p>b. 공간의 증거</p> <p>c. 공간은 없다</p>	<p>5회</p> <p>a. 안티 중성의 공간</p> <p>b. 시간을 넣은 공간</p> <p>c. 공적공간과 사적공간</p>	<p>9회</p> <p>a. 공간의 경계</p> <p>b. 공간의 관계</p> <p>c. 공간의 모듈</p> <p>d. 공간의 비례</p>
<p>2회</p> <p>a. architectonic space</p> <p>b. 노자의 공간개념</p> <p>c. 5차원공간</p>	<p>6회</p> <p>a. 공간의 밀도</p> <p>b. 공간의 전이</p> <p>c. 공간의 위계</p>	<p>10회</p> <p>a. cyber space</p> <p>b. space syntax</p> <p>c. spatial behavior</p>
<p>3회</p> <p>a. 누구의 공간인가?</p> <p>b. 얼어붙은 공간</p> <p>c. 서랍속의 공간</p>	<p>7회</p> <p>a. 공간의 창조</p> <p>b. 기억나는 공간</p> <p>c. 쉬운 공간만들기</p> <p>d. 공간실험</p>	<p>11회</p> <p>a. 공간속의 기둥</p> <p>b. 씨나리오 있는 공간</p> <p>c. 창으로 본 공간</p>
<p>4회</p> <p>a. 공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p> <p>b. 논리로서 공간을 이해한다.</p> <p>c. 공간지놈지도</p>	<p>8회</p> <p>a. served space &amp; servant space</p> <p>b. 공간의 종류</p> <p>c. 공간의 극</p>	<p>12회</p> <p>a. 공간계획</p> <p>b. 공간디자인</p> <p>c. 공간문법</p>

## a. 공간의 밀도 Space Density

밀도는 단위 공간내에 인구의 수나 자동차의 수, 공장의 수, 등등 사물의 숫자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수치가 높으면 밀도가 높아지고 수치가 낮으면 밀도가 낮다고 한다. 인구 밀도는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밀도로서 사람의 생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인구밀도가 높으면 사람들이 많게 되어, 사람과 관련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되며, 사람들의 부적임을 느끼게 된다. 사람들로 꽉찬 지하철을 이용할 때면 높은 밀도에 의해 짜증이 나며 한산한 공원을 거닐 때면 낮은 밀도에 의해 여유로움을 느끼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밀도가 높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명동이나 압구정 로데오 거리를 걸을 때는 사람들로 부적임에 의해 오히려 활기참을 느끼게 되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그 속에 있다는 소속감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높은 밀도는 오히려 생동감을 준다. 홍콩은 높은 밀도에 의해 오히려 도시의 생동감이 살아있는 도시이다. 국토가 우리나라의 100분의 1밖에 안되면서 인구는 10분의 1이나 된다. 밀도가 열배는 높은 셈이다. 복잡한 서울과 비교해서도 약 2배의 인구밀도를 갖는다. 언뜻 과밀한 인구 밀도와 높은 건물에 의해 위압감을 느끼게 되지만 세계인들이 찾는 관광지로서 고밀도의 특징을 보여준다.



그림 1. 상해 시가지 모형: 고밀도의 도시공간 모습

사람은 밀도에 대한 적응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간속에서 안정된 개인영역의 확보 측면에서 보면 저밀도의 경우에는 자신의 신체 밖으로 넓은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반면, 고밀도의 지역에서는 자신의 신체밖으로 최소한의 영역만을 확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적한 길에서는 마주치며 걷는 사람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걷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복잡한 길에서는 어깨가 닿을 듯이 걸어도 당연히 받아

들이는 듯하다. 밀도가 문화화되어 민족적 특성으로 보여질 때, 그것은 수치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사람들이 한산한 동네 골목길이나 공장지역을 걸을 때면 썰렁함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 밀도는 상대적인 측면이 있다.

인구의 밀도 외에 가구의 밀도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서울의 논현동에는 가구의 거리가 있다. 가구점들이 길의 양쪽에 들어서 있으며, 윈도우로는 세계각국의 가구들을 전시하며 판매한다. 일상의 건물들은 사람들이 일을 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공부를 하는 등, 사람들의 활동을 담는 공간인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건물의 밀도는 곧 인구밀도와 상관되는 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구의 거리에서는 건물이 가구로 채워져 있으며 사람들은 가구를 고르기 위해 구경하는 루트의 공간만을 차지하는 정도이다. 건물의 면적을 가구가 차지함으로써 가구의 밀도는 높지만 사람의 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셈이 된다. 그리하여 논현동 가구 거리에는 사람들이 부적이며 만들어내는 식당가가 없으며, 소매점도 많지 않다.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밀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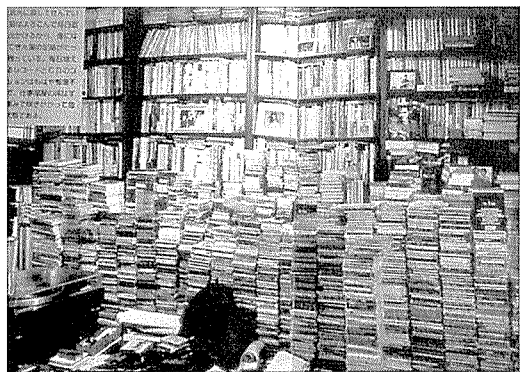


그림 2. 둘러싸인 책으로 만들어지는 방의 밀도

또 집안의 가구나 책의 밀도를 상정해 볼 수도 있다. 가구가 짝 차 있으면 답답해 보이기도 하며 책이 짝 차 있으면 답답하면서도 책이 갖는 우월 의식에 젖게 만들기도 한다. 옛날 우리나라 전통 양반 가옥의 방안에는 가구가 거의 없이 벽장으로 방안의 물품을 정리하였으니 이는 방의 규격이 워낙 작아보니 가구를 둘 수 없어 벽장 형식으로 수납공간을 해결하려는 공간의 확장이라는 지혜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방 내부에 아무것도 두지 않고(밀도의 제로상태), 번잡함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조상의 순수함을 엿보게 한다.

그밖에 벽지의 장식의 밀도, 신문의 글자의 밀도를 들 수 있다. 촘촘한 벽지의 장식은 어느정도는 눈에 띄지만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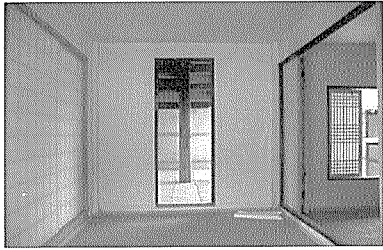


그림 3. 텅 비어있는(제로 밀도에 가까운) 한옥의 내부모습

식이 작아지면  
서 군집화 하  
면 전체의 톤  
을 바꾸게 된  
다. 신문의 글  
자 밀도는 신  
문과 읽는 사  
람의 시각적

관계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관계를 굉장히 가깝게 만든다고  
생각된다.

공간의 밀도는 공간의 비가시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공  
간을 만드는 요소의 밀도를 말한다. 공간을 만드는 기본 요소  
가 되는 구조형태의 밀도일 수도 있으며, 구조체 사이를 메  
우는 내장재의 밀도, 또는 장식의 밀도, 창문의 프레임의 밀  
도 등이 공간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된다. 공간요소  
의 밀도는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작용한  
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요소의 밀도가 과밀하거나  
요소의 밀도가 과소할 때 어떤 변화가 인지될 수 있다. 조그  
만 방에 무늬가 없는 벽지를 발랐을 때와 큰 무늬의 벽지를  
발랐을 때, 그리고 작은 무늬의 벽지를 발랐을 때, 그 느낌  
은 오랜 시간 거주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과 같은 거대한 역사 건물의 대형공간에는 그 공간에  
맞는 밀도의 벽체요소가 적용될 때 안정감 있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한국건축의 누마루에서 보여지는 서까래의 밀도  
는 오픈된 자연환경의 광대한 스케일에 대비되는 과밀한 요  
소로 형성된 공간을 만듦으로서 누마루의 공간성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고 생각된다. 창고와 같이 대형의 공간이지만  
구조나 내장재의 요소변화가 없이 밋밋한 모습을 보인다면,  
밀도의 측면에서 내부공간과 상관되지 않음으로서 사람들  
과의 관련성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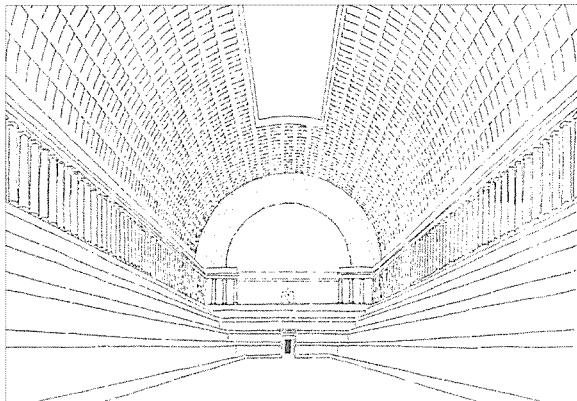


그림 4. E.L. 볼레(Boullée), 프랑스 국립 도서관 계획안의 내부모습: 비워진  
공간의 벽체 장식 밀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비워진 공간에서의 공간구성 요소의 밀도는 공  
간을 사용하게 될 구체적 사건과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텅  
빈 공간의 무늬 없는 벽체가 썰렁해 보일 수 있지만 사람  
들로 북적이게 된다면 벽체의 디테일을 압도하는 사람들의 모  
습에서 보여지는 공간의 밀도가 발생될 것이며, 그때에는  
오히려 공간을 구성하는 기존의 요소밀도가 오히려 거추장  
스럽게 느껴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공간과 공간구성요  
소의 밀도, 그리고 사용자의 상황, 이 세가지 인자가 서로  
상응될 때 공간의 효과가 제대로 되었다고 판단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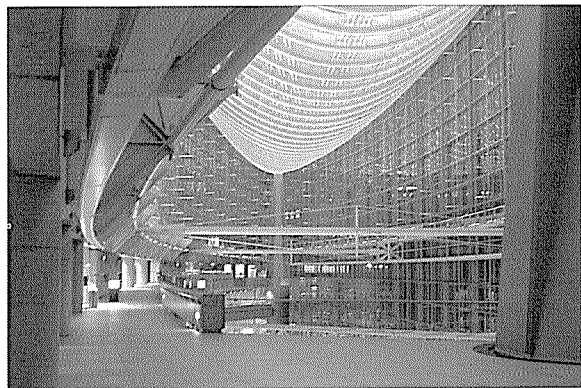


그림 5. 라파엘 비놀리의 동경포럼 내부 모습: 허공속에 구조체의 과밀한  
적용을 통해 공간의 밀도를 확보하고 있다.

밀도는 사람들의 적절한 요구를 표현하는 하나의 지표이  
기도 하다. 그러나 인간의 적응성은 그것을 문화적 인자로  
바꾸어 놓았으며, 사람에 따라, 지역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밀도의 다변성이 인정된다. 공간의 밀도는 공간이 갖는 적  
정한 분위기의 형성을 의미한다. 그것은 공간의 크기나 사  
용 조건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서 공간구성의 요소가 조정되  
어야 함을 뜻한다.

## b. 공간의 전이 Transition of space

아침에 집에서 나와 직장으로 가는 공간의 변화를 보면,  
자가용 차를 갖고 다니는 경우에는 집 → 주차장 → 주차장  
→ 직장의 간단한 흐름이 있으며, 걸어 다니거나 버스를 타  
고 다닐 경우에는 집 → 길 → 정류장 → 정류장 → 길 → 직  
장의 공간 변화를 겪게 된다. 이때 차를 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큰 차이는 길이라는 공간이 중간에 끼어 있게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이다.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집이  
라는 공간으로부터 직장이라는 공간으로의 변화가 그다지 크



그림 6. 공간의 전이

지 않아 매우 편하다는 생각도 들고, 집과 직장이 그다지 별개의 공간처럼 느껴지지 않게 된다. 그러나 중간에 길이라는 공간을 걸어서 가야하는 사람들은 집과 직장 사이가 멀게 느껴지기도 할뿐더러 집과 직장은 전혀 다른 공간인 것처럼 느끼게 된다. 공간의 전이는 이와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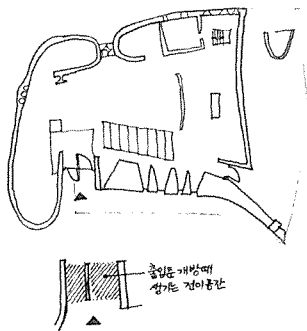


그림 7. 르코르뷔제의 통상교회 출입문: 대형의 문(폭 3m)이 열리면서 전이하는 벽면을 만들어낸다.

A라는 다른 공간으로부터 B라는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을 말하며, 이동의 형식에 따라 공간전이의 효과와 의미는 달라지게 된다. 만일 재택 근무를 하여 집과 직장 사이에 커다란 변화 없이 공간이동이 자유로운 경우라 할지라도, 방으로 구획되어 문을 통한다면 문이 공간전이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며, 거실공간을 치워 업무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물건을 치우고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 공간의 전이는 발생된다고 생각된다.

시간의 흐름 까지도 공간의 전이로 본다면 일상공간에서 공간의 전이는 항상 발생된다고 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 공간의 성격개념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간의 전이는 공간이 바뀐다는 측면에서만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성격이 바뀌는 것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업무를 보는 공간은

업무공간으로서 공간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며, 휴식을 취하는 가정의 공간내에서는 특정의 상황변화가 없다면 공간의 전이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상적일 것이다. 또한 거리의 길 모양이나 분위기가 바뀌는 공간이 있더라도 출퇴근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공간 성격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전이공간으로서 밖에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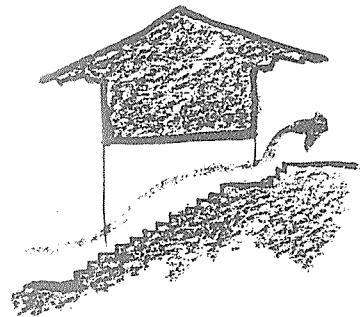


그림 8. 해인사의 누하진입 : 강한 임팩트 효과를 달성한 한국 건축의 공간 전이 방식(그림:인영배)

그러나 똑같은 길도 출퇴근을 위한 길일 경우와 산책을 위한 길일 경우, 공간의 전이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직장으로서 출근한다는 목적에 있어서 길은 하나의 매개하는 공간이 되며, 이때에는 극단적으로 걷다가 차를 타는 것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동이라는 동일한 행위를 지칭함으로써 공간 전이에 속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시각으로 본다면 이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동 방식만 바뀌는, 예를 들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지하철을 타러 가는 행위와 같은 변화는 공간전이가 아닐 수 있으며, 이때의 지하철역은 공간전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이되지 않는 공간 체계의 구성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제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지하철역은 길의 공간과 성격상 같을 수 있으며, 따라서 길처럼 오픈된 공간 체계나 외부공간처럼 지하철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된다. 그러나 산책의 목적으로 길을 걷는 사람은 길 공간의 미묘한 감성적 느낌 변화로도 공간의 전이가 발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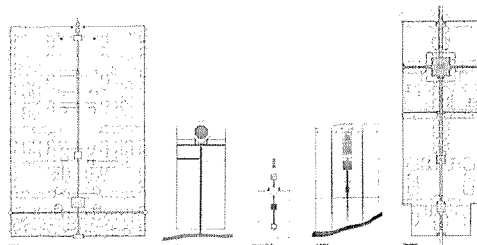


그림 9. 서로 다른 공간전이를 보여주는 정원의 구성

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상쾌한 기분의 길 공간과 빨리 걸어 가버리고 싶은 길 공간, 재미있는 길 공간, 흥미가 없는 길 공간, 등등 동일한 길이지만 감성의 변화를 느끼면서 공간의 전이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산책이라는 행위에 맞게 다양한 공간경험이 가능한 공간 전이를 이루도록 길을 꾸미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간의 전이는 좋은 것이며 꼭 필요한 것인가?

사람에 따라서는 목적 공간속의 행위에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 공간의 전이를 도와주는 전이공간은 불필요한 낭비로 보여질 수 있을 것이다. 집에서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시간과 공간의 전이는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업무공간과 업무공간사이의 공간전이도 축소될수록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는 휴식의 개념도 목적공간화 하여 공간의 전이 없이 업무공간에서 휴식공간으로 쉽게 전환되기를 바랄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생존을 위한 목적행위의 삶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목적 공간과 목적공간 사이에 공간의 전이를 도와주는 전이 공간은 오히려 삶을 윤택하게 하는 새로운 개념의 건축적 목적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업무를 마치고 헬스장으로 이동하는 공간의 전이를 쓸데없는 시간과 공간의 낭비라고 생각하기 보다, 이동하는 길의 의미를 보다 중시한다면 길을 걸으며 헬스장에서 할 수 있는 운동과 여유의 시간을 전이의 공간을 통해 대신해볼 수도 있는 것이며, 출퇴근 시간의 단축에 의미를 두지 않고 전이하는 공간의 향유를 염두에 둔다면, 시간과 공간의 촉박함을 벗어나 오히려 다른 삶의 의미를 충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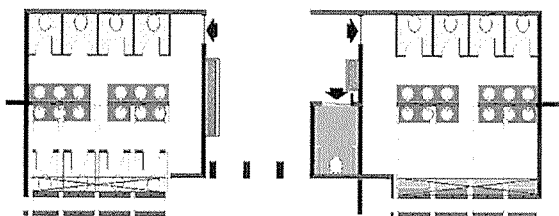


그림 10. 홍콩 빅토리아 공원 공용화장실의 평면과 사진: 접근을 도와주는 전이 공간의 처리가 돋보인다.

이 목적 공간들로 만들어진 삭막한 삶의 공간으로부터 숨통을 트이는 매개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이공간의 좋고 나쁨을 벗어나 꼭 필요한 경우도 있다. 길을 가다 보여지는 공용화장실은 공적 공간이면서도 사적 공간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며, 공적 공간 속에 위치하므로 그 처리에 섬세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공간의 전이에 대한 의식 없이 일상적인 화장실 패턴을 적용하여, 공적 공간에서 특별한 장치없이 사적공간으로 연계되어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게 되어있다.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 사이의 전이를 고려하여 매개되는 공간에 대한 배려가 보다 강구될 필요가 있는 공간이다.

전이의 형식은 공간의 성격에 따라 융통성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사적공간으로서 주택이나 절간으로의 공간 전이와 공적 공간으로서 상가나 관청의 공간 전이는 다를 것이다. 건물을 들어설 때, 일반적으로 입구 → 홀 → 계단실(엘리베이터) → 통로 → 목적공간의 형식을 갖겠지만 사적 공간에 속하는 아파트의 경우는 공용주차장으로부터 20여 호가 공유하는 건물 입구 → 계단실 → 2 호가 공유하는 홀 → 개별 주호로 연계된다. 그러나 상점의 경우는 공공이 통행하는 도로로부터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의 입구로부터 곧장 매장 또는 매장으로 통하는 통로로 연결된다. 만일 상점이 사적인 통제를 하듯이 2호나 4호만이 공유하는 계단 홀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면 그러한 상점으로서의 접근에 매우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상점의 경우, 대중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프라이버시의 공간 전이는 거추장스러운 장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공간의 전이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상점으로서의 상행위를 도울 수 있는 공간의 전이도 가능할 것이다. 과일가게가 보도 쪽으로 과일을 진열하는 부분은 길을 가는 사람과 과일가게 사이의 일종의 전이공간을 만들어 관심을 유도하는 방식이 될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전이의 형식을 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1 : 용도별 일반적인 공간의 전이 과정 및 그 변화 가능성

용도	일반적인 공간의 전이	변화 가능한 공간의 전이
극장	입구-홀-상영관	홀-입구-상영관
사무소	입구-홀-계단실-통로-사무실	통로-사무실
학교	교문-길-현관-통로-교실	길-통로-홀-교실
주택	길-대문-마당-현관-거실-방	길-방-마당-방
아파트	주차장-입구-엘리베이터-홀-현관	주차장-홀-입구-엘리베이터-현관
미술관	진입공간-입구-로비-홀-전시공간	진입공간-홀-입구-전시공간
도서관	입구-홀-통로-열람실	통로-입구-홀-열람실
상가	길-상점	길-매개공간-상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공간의 전이를 보면 표1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지만 공간의 전이에 변화를 주면(전이 프로세스나 전이 공간의 종류) 공간 경험은 전혀 색다르게 될 수도 있다. 극장의 경우에 입구 → 홀 → 극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화를 보게 하기 위한 유혹의 공간을 전이 공간으로 삽입한다면, 홀 → 입구 → 홀 → 극장의 공간 전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바다 해수욕장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주차장 → 길 → 모래밭 → 바다의 공간 전이를 갖지만, 바다라는 자유공간으로의 해방감을 만끽할 수 있도록 주차장 → 모래밭 → 바다로 단계를 축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전이 공간의 형식에 의해서만 공간의 효과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전이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형식을 넘어서는 풍요한 공간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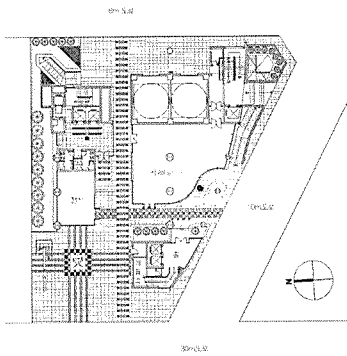


그림 11. 씨네펀러스 1층 평면: 건물의 1층을 길로 남겨두는 공간의 전이 방식에 의해 상부 건물로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사례이다.

때로는 공간의 전이가 막힌 곳에 이르게 된다. 막다른 골목에서의 당혹감처럼 공간전이가 끊기는 곳도 목적 행위를 달성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야기하기도 한다.

공간의 전이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설정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공간의 전이에 대한 다른 시선을 갖는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구성하는 건축공간의 구성에 변화있는 장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간의 전이는 인간의 삶에 대한 해석과 연동되어 있어 건축공간의 변화에 대한 인간의 심리적 대응 방식에 의해 민감하게 설정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 c. 공간의 위계 Hierarchy of Space

택시안의 좌석에 위계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운전석 뒤의 옆자리가 가장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이며, 다음이 운

전석 뒷자리, 그리고 다음이 운전석 옆자리라고 한다. 아마도 자동차의 속성상 교통사고의 위험을 많이 고려하여 그와 같은 공간의 위계를 정했는 듯 싶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안전한 자리이면서 타고 내리기 편한 자리, 그러나 다른 변수는 없었을까? 예를 들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망을 보기 좋은 자리로서 앞자리를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텐데, 역시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주행중의 앞차와의 신경겨슬림이 그 자리를 불편하며 위계가 떨어지는 자리로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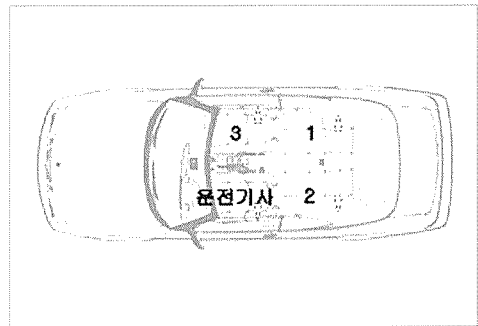


그림 12. 택시의 좌석 위계

건축공간에서 공간의 위계는 직급이 다른 여러 사람이 모이는 회의석상에서 극명하게 보여진다. 누가 어느 자리에 앉았 것인가는 공간의 위계를 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회장님,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그들의 위치는 고정된다. 그러나 외부에서 손님이 올 경우에 좌석 배치의 원칙이 흔들린다. 회장님과 친한 분이거나 그러한 위계의 외부인사라면 회장님 옆자리를 비워두어야 한다. 외부손님의 위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큰 고민 않고 자리를 배열할 수 있겠지만 위계를 알기 힘들고, 또한 본사와의 관계에 미묘한 위계차이를 보일 경우 그 자리 배열은 매우 까다로워질 수 있다. 일상에서야 한 두시간 앉는 자리에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편의성에 따라 앉을 수도 있겠지만 보다 의미 있는 자리이거나, 혹 좋지 못한 자리에 위계가 높은 분이 앉게 되어 기분이라도 상한다면, 회의 목적은 차치하고 매우 곤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간 신경쓰이는 부분이 아니다.

실내공간에서의 공간의 위계는 어떻게 정해질까? 문을 들어서면서 앉기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위치, 또는 문을 들어서면서 눈을 마주치지 않는 위치, 외부인에게 시각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위치, 뒤에 들어오는 사람으로부터의 방해나 환경적인 요인인 눈부심, 냄새원, 소음원으로부터의 이격 위치가 있을 수 있겠고, 최후의 만찬 그림에 보듯이 좌우에서 보좌하는 듯한 중앙의 위치에 대한 의미의 부여가 중요한 요소이다. 일 방향 테이블이면 중앙이 분명

하지만 ㄱ자로 깎인 경우나, ㄴ자 테이블 배치의 경우는 중앙을 정하기가 쉽지는 않다. 절이나 교회같은 종교시설에서 보이듯이 우리나라는 넓은 면을 중앙으로 생각하는 반면, 서양에서는 방향성의 끝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위치잡기는 회의실이나 식당에 들어서며 잠시 겪어야 하는 일상사의 하나이다. 공식적인 자리라면, 테이블에 미리 이름을 적어 넣어 쉽게 자신의 위치에 맞는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볼 수 있다. 공간의 위계는 직급의 위계에 의해 정해지기도 하지만 연령의 위계, 대접의 의미, 또 다른 변수 등에 의해서도 정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공간의 위계가 과연 바람직스러운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공간에는 성격이 주어지고 성격은 공간의 특성을 다르게 하고, 그것이 일상의 사람들에게 공간의 차별성으로 인식되며, 따라서 차별화된 공간은 사회적으로 다른 위계를 갖는 사람들을 위해 배정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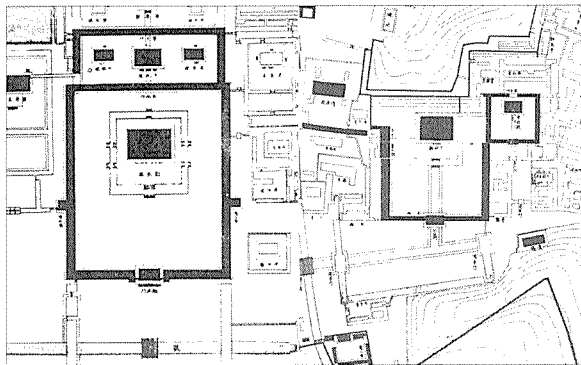


그림 13. 궁궐의 배치도: 공간의 위계를 보여준다.

한국전통 건축의 공간은 위계성을 표현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다. 주요한 공간이 있고, 그것을 주변으로 부차적인 공간들이 밀집된 형태를 이루고 있거나 주요한 공간으로의 진입을 위해 부차되는 공간이 줄지어 배열되는 경우를 예로 든다. 궁궐의 경우, 왕이 기거하는 영역은 외부로부터 깊숙한 곳에 위치하며, 다양한 공간의 전이를 거치게 하면서 높은 위계의 공간을 생성한다. 사찰의 경우, 신을 모시는 공간인 대웅전은 일주문, 천왕문 등의 전이공간을 거치면서 역시 높은 위계를 느끼게 하는 공간으로 생성된다.

위계가 높은 공간은 위계가 낮은 공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간의 규모가 크거나 공간의 형태가 반듯하고, 공간을 이루고 있는 장식품이나 설비, 색상 등에서 풍족함을 갖는 방식에 의해 표현된다. 일반적으로는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물이 부족한 지역(페

루 쿠스코의 시내중심에 위치한 사원)에서는 지하수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지역이 위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되기도 한다. 즉, 위계가 높은 공간은 공간의 조건을 상대적으로 완전한 상태로서 표현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위계가 낮은 공간은 위계를 잃어내지 못할 정도로 일상화된 공간의 모습으로 보여진다. 일상의 공간으로부터 긍정적인 방향의 비밀상화된 모습으로의 전이를 통해 공간의 위계가 생성된다고 판단된다.

공간의 위계는 사회적, 상징적, 심리적 등의 의미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된다. 유교적 전통의 위계사회에서 계층별, 남녀별, 나이별, 군신별, 직종별 위계를 갖고 있었으며 이는 그것을 대표하는 공간들의 위계로 직접적으로 표출되었다. 왕이 기거하는 공간이 중요한 위계가 높은 공간이고, 기관의 장이 중요한 측면에서 기관장의 사무공간이 중요한 공간이었으며, 양반의 거처가 위계가 높았다. 종교 공간에서의 신과 접하는 부분과 세속으로부터 이탈되는 경로에서의 여러 공간은 그 위계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위계가 높은 공간은 지형적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거나 넓은 정형의 공간을 형성하기도하고,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대비하여 깊은 공간을 형성하는 모습을 띄었다. 이러한 전통은 사회적 특징과 관련됨으로서 우리나라의 전통건축을 지배하는 강한 특징이기도 하였으며 최근까지도 관공서 건축 등에서 표현되는 특징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위계가 변화되면서 공간의 위계도 변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주택의 경우,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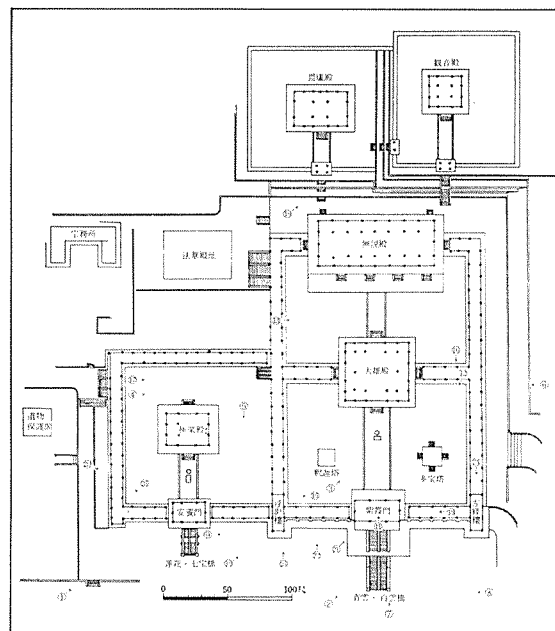


그림 14. 공간의 위계를 보여주는 불국사의 배치도

은 공동체로서 가족 구성원 누구나 평등한 사람으로 바뀌면서 가족 모두가 모이는 거실이 중요한 공간이 되었고, 사무소 건물은 노동자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사무공간 전체가 중요한 공간이 되고 있다. 도시구조에서도 T자형이나 방사형의 중앙집중적 위계구조로부터 그리드형의 구조로 바뀌면서 위계를 드러내기 보다는 편리하고 대등한 위상을 나타내고 있다. 건물들은 커다란 정문에 의해 권위를 드러내는 방식에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여러 개의 통로, 또는 대등한 접근을 상징하는 아트리움 등을 통해 출입의 위계 차이를 없애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공간의 위계가 사라지면서 모든 공간이 대등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공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일 것이다. 그리하여 공간의 변화는 오직 목적 공간과 공간의 전이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공간의 구성에 대한 심리적 변화마저 공간의 전이 현상에만 맡기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거대 공간과 작은 공간, 정형공간과 비정형공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공간의 조임과 풀림은 심리적인 차원의 중요한 공간경험이 될 수 있다. 음악의 리듬에서의 강, 약, 약, 강, 중강, 약 등의 마음을 울리는 음률은 변화에 대한 심리적이며 미학적 구성의 의미를 일깨워준다. 건축공간에서의 강, 약, 약, 구성이 음악에서와 같이 심금을 울리는 구성이 될지는 증거할 수 없겠지만, 우리나라

의 전통건축물의 위계적 공간구성 속에서 많은 건축가들이 오히려 공간의 풍요함을 잃어내고, 공간의 한국적 특성을 찾아내는 것을 보면, 공간의 강, 약 조절이 자칫 공간의 위계를 만들어내는 반 시대적인 입장이 될 수도 있지만, 인간 심리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을 건축공간에서 수용하는 입장에서 건축공간의 구성적 풍요함을 얻게 만드는 방식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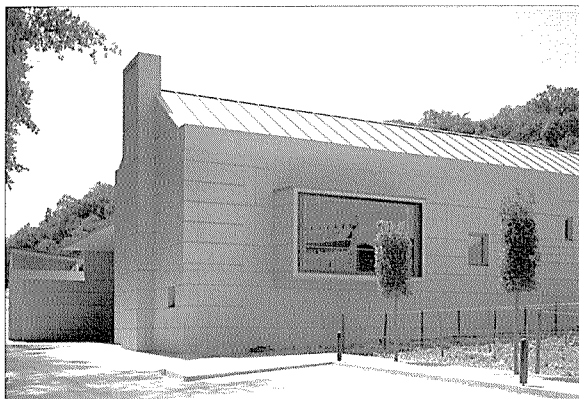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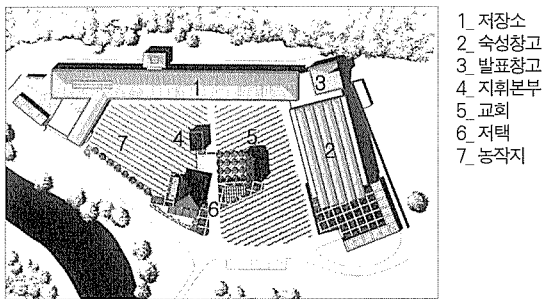


그림15. 리피엘 모네오, 스페인 나바레의 포도주 생산공장 배치도 및 부분사진: 각 기능공간의 위치와 외부공간의 구성에서 기능에 따른 위계적 관계가 보여진다.